중국의 중장기(2026~2035) 농산물 수급 전망: 축산물 및 기타 품목

지 성 태*

1. 서론

2014년부터 중국은 매년 4월 정기적으로 농업전망 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10년간의 농업전망 보고를 발표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올해 4월 20일 발표한 "중국농업전망보고(2026~2035)(이하 '전망보고')"를 요약·정리하였다. 전망보고는 20종(류)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2025년 시장상황을 종합하고, 2026년, 2030년과 2035년 등 중요 시점을 포함한 향후 10년간의 생산, 소비, 무역, 가격 추세를 전망하였고, 예상되는 불확실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농업전망에서는 국가통계국,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자연자원부, 국가식량물자비축국, 기상국 등의 중국 정부부문이 공개한 통계와 모니터링 데이터는 물론, UN, FAO, OECD, World Bank, G20의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 등의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에서 공표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전망보고의 추정치는 중국농업과학원 농업정보연구소에서 개발한 중국 농산물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China Agricultural Monitoring and Early-warning System, CAMES)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이 시스템은 다수의 품종, 다수의 시장, 동태적이고 개방된 모형이 복잡하게 결합되었으며,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수학계획모형(Mathematical Planning Model), 계량경제모형, 빅데이터 분석모형, 인공지능모형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연관성, 통일성, 균형성 등의 원리에

*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부교수(dongsimjst@snu.ac.kr).
본 고는 중국 농업농촌부가 발간한 보고서 "중국농업전망보고(2026~2035)" 중 주요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작성됨.

따라 설계되었으며,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 조기경보와 전망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CAMES는 거시경제 조건(경제발전, 인구 변화, 도시화율,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 소비가격지수, 위안화 환율, 국제원유가격 등)과 농업생산 조건(농업인력자원, 경지자원, 수자원, 농업 과학기술, 농업정책 등)을 가정하고 있다.

생산 전망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하 단수)과 파종면적 예측에 근거하며, 소비 전망은 식용, 사료용, 가공용, 종자용, 감모(loss) 등 용도별 소비 예측에 근거한다. 무역 전망은 농산물 국제가격, 국제 운송비, 국내 수요, 기저(Basis), 환율, 무역정책 등 요인에 근거하며, 가격 전망은 다수의 품종과 시장의 수급 균형모형에 근거하여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농업전망은 식량 전체, 벼(쌀), 밀, 옥수수, 대두, 유지작물과 식물성 식용유, 면화, 당류, 채소, 감자, 과일, 육류 전체, 돼지고기, 가금육, 소고기·양고기, 가금알, 유제품, 수산물, 사료를 대상으로 한다. '세계농업 제266호(2026년 여름호)'에서 식량 전체, 벼, 밀, 옥수수, 대두, 채소, 감자, 과일을 이미 정리하였으며, 본 고에서는 돼지고기, 가금육, 소고기, 가금알, 유제품, 유지작물과 식물성 식용유, 당류, 사료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2. 돼지고기

2025년 돼지고기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돼지 출하두수는 7.2억 두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돼지고기 생산량도 5,938만 톤으로 4.1% 증가했다. 소비량도 3.8% 증가한 6,020만 톤을 기록했다.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kg당 25.29위안으로 전년 대비 8.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돼지고기 수입량은 97.58만 톤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하였다. 향후 10년간 돼지고기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소비량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돼지고기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	전망치	연평균 증감 (%)
생산	생산량	5,938	5,870	-1.1	5,668	-2.5	5,511	-0.5
소비	총소비량	6,020	5,943	-1.3	5,723	-3.3	5,535	-0.7
	- 직접소비	4,663	4,585	-1.7	4,284	-5.8	3,980	-1.3
	- 가공소비	1,072	1,094	2	1,184	9.2	1,307	1.9
	- 기타·손실	285	264	-7.4	255	-10.5	248	-1.4
무역	수입	98	90	-8.2	75	-37.5	50	-8.4
	수출	14	17	21.4	20	42.9	26	6.4

주 1) 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2023~2025년 평균치 대비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2) 연평균 증감은 기준연도와 2035년 수치를 비교하여 산출한 연도별 평균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2.1. 생산 전망

2025년 8월부터 모돈 사육두수가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2026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5,87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화, 주민들의 건강의식 제고, 식품 소비구조 다변화 등으로 가금육, 소고기, 양고기와 수산물의 소비 비중이 상승할 것이며, 돼지 출하두수와 돼지고기 생산량은 모두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2030년 돼지 출하두수는 6.91억 두, 돼지고기 생산량은 5,668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기준연도 이후 연평균 0.5% 감소한 5,51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2. 소비 전망

2026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5,943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가공용 소비량는 돼지고기 소비구조 변화와 간편식 시장 확대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1,094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며, 가정에서 직접 소비하는 양은 4,58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 1인당 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년 대비 1.1%로 증가한 42.38kg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체육 제품 소비 증가로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돼지고기 총소비량과 1인당 평균 소비량은 각각 5,723만 톤과 40.97kg이고, 2035년에는 각각 5,535만 톤과 39.85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3. 무역·가격 전망

단기적으로 돼지고기 생산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자국산 신선육과 냉동육 가격이 하락하며, 유럽산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적용됨으로써 2026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90만 톤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산 공급에 여유가 생기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수입량은 매년 3~5만 톤씩 감소하고, 전망 후반기에는 5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2026년 중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17만 톤을 기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양돈산업 발전과 상품의 경쟁력 강화로 2030년 수출량은 20만 톤을 기록하고, 전망 후반기에는 25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하반기 번식용 모돈 사육두수가 감소하였으나 생산 효율이 향상되어 동 기간 신생 자돈 수가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2026년 상반기 돼지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생돈 가격이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양돈 기업 중심으로 사료공장, 도축장 자체 운영으로 공급사슬이 강화됨으로써 시장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지고, 가격 변동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4. 불확실성 요인

최근 중국의 양돈업계 기업 대부분이 출하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 선도기업이 대규모 생산능력을 장악하는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에서 선도기업의 경영위험이 산업 전반의 생산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향후 10년간 돼지고기 생산량 예측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소비자 구매력, 인구구조, 대체재가 돼지고기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향후 10년간 인구 총량의 감소폭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돼지고기 소비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1인당 GDP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선 이후에는 육류 소비구조 변화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대체재인 가금육, 소고기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ican Swine Fever, ASF)과 같은 중대 동물전염병은 돼지고기 생산량과 가격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교란 요인이다. 향후 10년간 전염병의 발생 시점, 전파 범위, 바이러스 변이, 방역 효과 및 긴급 대응 능력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 또한 대규모·집중화된 사육 방식의 확대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동, 국제무역 갈등, 글로벌 식량안보 정책의 조정, 주요 국가의 기후정책 변화 등은 사료 원료의 수입 및 공급, 돼지고기 수출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 생돈 사육에서부터 도축·가공에 이르는 전체 공급사슬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

3. 소고기

2025년 축산업계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수익구조가 호전되면서 소고기 생산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 소 사육두수는 5,133만 두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으며, 소고기 생산량은 801만 톤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소비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1,081만 톤을 기록했다. 수입량은 전년 대비 2.5% 하락했으며, 연간 평균 가격은 1kg당 69.11위안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망 기간 내에 생산량은 전반기에 감소하다가 후반기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고,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은 소비 증가에 힘입어 상승 국면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소고기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	전망치	연평균 증감 (%)
생산	생산량	801	766	-4.4	770	-1.0	824	0.6
소비	총소비량	1,081	1035	-4.3	1,060	0.2	1,130	0.7
	- 직접소비	880	842	-4.3	859	-1.0	914	0.5
	- 가공소비	167	160	-4.2	170	9.7	183	1.7
	- 기타·손실	34	33	-2.9	31	-11.4	33	-0.6
무역	수입	280	269	-3.9	290	3.4	306	0.9
	수출	0.1	0.1	0.0	0.1	0.0	0.2	7.2

주 1) 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2023~2025년 평균치 대비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2) 연평균 증감은 기준연도와 2035년 수치를 비교하여 산출한 연도별 평균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3.1. 생산 전망

전망 전반기에는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특히 번식우가 줄어들면서 소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2026년 소고기 생산량은 766만 톤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망 중·후반기에는 우량 축종 번식, 스마트 사육과 질병 종합 방제 등의 기술이 보급되고, 표준화·규모화 사육모델이 보편화되면서 소 사육의 효율성과 생산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생산량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2030년 소고기 생산량은 770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1.0% 감소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0.6% 증가한 824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3.2. 소비 전망

단기적으로 주민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계와 외식 부문의 소고기 등 고가 육류에 대한 소비 의향이 하락할 전망이다. 2026년 소고기 소비량은 1,035만 톤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소고기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수요의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주민의 소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고기 소비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소고기 소비량은 1,060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0.2% 증가하고, 2035년 연평균 0.7% 증가한 1,13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3.3. 무역·가격 전망

단기적으로는 수입 쿼터 정책의 영향으로 소고기 수입의 빠른 증가세가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시장 가격 상승도 무역업체의 수입 의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소고기 수입량은 269만 톤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소 생산능력 회복 속도가 느리고, 국내 생산 여건이 생산 확대를 제약하는 가운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수급 격차가 장기간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소고기 수입량은 290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3.4% 증가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0.9% 증가한 306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공급과 수요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소고기 가격은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 소고기 공급 탄력성은 돼지고기, 가금육보다 낮고, 생산력 조정주기가 비교적 길고, 사료, 노동력, 방역, 환경규제 등의 비용이 상승하여 소고기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동시에 비교적 강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비 수요도 가격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3.4. 불확실성 요인

2025년 전 세계 평균기온이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의 평균기온 상승폭은 처음으로 연속 3년 동안 1.5℃ 임계값에 근접하였다. 이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극한기후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극심한 고온은 소 사육과 번식 효율을 떨어뜨리고 폐사 및 질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가뭄은 목초와 사료 공급을 위축시키고 보충사료 비용을 높이며 출하 시기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은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송 제한과 수출 중단 및 검역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충격을 가져온다. 2026년 1월 중국에

대한 수출을 재개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일랜드산 소고기가 블루텅병(Bluetongue) 발생으로 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2026년 질병이 주산지 혹은 주요 수출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산 공급은 물론 소고기 수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 관세 인상, 수입 쿼터 및 검역 규정의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중국 소고기 수출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충돌과 안보 이슈의 잦은 발생으로 교역 항로와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함으로써 글로벌 농축산물 공급망의 안정성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가금육

2025년 가금육 생산량은 2,837만 톤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고, 8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2,778만 톤을 기록하였다. 국내 가금육 생산량 증가로 수입량은 29.9% 감소한 69.5만 톤, 수출량은 39.8% 증가한 128.7만 톤을 각각 기록하였다. 전망 기간에 가금육 생산량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량과 수출량은 각각 완만한 증가세와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가금육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	전망치	연평균 증감 (%)
생산	생산량	2,837	2,966	4.6	3,200	19.1	3,380	2.3
소비	총소비량	2,778	2,906	4.6	3,098	15.1	3,259	1.9
	- 직접소비	2,240	2,296	2.5	2,433	9.3	2,524	1.3
	- 가공소비	458	528	15.3	573	46.5	632	4.9
	- 기타·손실	80	83	3.8	92	26.0	102	3.4

(계속)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	전망치	연평균 증감 (%)
무역	수입	69.5	90	29.4	101	1.4	127	2.4
	수출	128.7	150	16.5	204	112.3	248	10.0

주 1) 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2023~2025년 평균치 대비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2) 연평균 증감은 기준연도와 2035년 수치를 비교하여 산출한 연도별 평균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4.1. 생산 전망

국내 백색 깃털 육계(백우육계)의 자체 육종 품종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으로써 원종 도입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생산력의 변동성도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다. 가금육 생산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으로써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지만, 그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2026년 가금육 생산량은 2,966만 톤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망 중·후반기에는 가금육 산업의 시장화·규모화·표준화가 진전되고, 입체 사육, 환경 제어, 정밀 급이 등의 기술이 보급되는 상황에서 가금육 생산량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어, 2030년 생산량은 3,200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19.1% 증가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2.3% 증가한 3,38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4.2. 소비 전망

요식업 체인점화 추세, 건강식품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힘입어 가금육 소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그 증가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가금육 소비량은 2,906만 톤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망 중·후반기 가금육 소비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상품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구 증가세 둔화, 고령화 가속화 등의 요인으로 소비 증가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가금육 소비량은 3,098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15.1% 증가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1.9% 증가한 3,259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4.3. 무역·가격 전망

2026년 가금육 수입은 브라질 등 수출국의 공급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29.4% 증가한 9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전망 중반기에는 가금육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신선·냉동 상품 수입량이 기본적으로 안정화되고 가공 가금육 수입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수입량은 101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1.4% 증가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2.4% 증가한 12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가금육의 국제 경쟁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가공품이 더욱 풍부해지면서 수출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가금육 수출량은 1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망 중·후반기에도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2030년 기준연도 대비 112.3% 증가한 204만 톤, 2035년 연평균 10.0% 증가한 248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에는 여유로운 공급량 확보로 가금육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 하반기에는 업계 전반의 생산력 약화로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연간 닭고기 재래시장 가격은 kg당 22~23위안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망 중·후반기에는 사육 비용이 상승하고 소비가 한층 더 증가하여 가금육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4.4. 불확실성 요인

2025년 백우육계 원종계의 주요 도입 대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가금육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종인 백우육계는 원종계의 해외 도입 비중이 여전히 3분의 1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HPAI 발생은 중국의 백우육계 원종계 공급은 물론 전체 가금육 생산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일부 중·소규모 사육농가의 동물 전염병 대응 관련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방역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질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국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금육과 사료 원료 수입 및 가금류 사육비용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환율 변동은 중국 가금육 수출기업의 경영위험을 증가시키고, 주요 수입국의 기술무역장벽도 중국 가금육 수출 증가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이 자체 육종한 육계 품종의 생산성은 국제 선진 수준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품종들이 시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동물 질병에 대한 집단 방역·통제 기술을 고도화하고, 대두박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신기술을 보급하여 사육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황우육계의 신선육 시장을 겨냥한 특화 품종을 선발·육성하는 등의 과제 역시 향후 10년간 중국 가금육 산업 발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가금알

중국은 세계 최대 가금알(계란, 오리알, 거위알 포함) 생산국인 동시에 소비국이다. 가금알은 주민의 필수 식재료이고,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다. 2025년 알 생산 가금류 사육 마릿수에서 도태를 앞둔 산란계의 수가 비교적 많고, 산란계의 평균 알 생산율은 소폭 하락했다. 그리고 4분기에 알 생산 가금류의 생산력은 조정단계에 진입했고, 알 생산 가금류의 사육 마릿수는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폭 감소했으며, 가금알 생산량도 전년 대비 2.5% 감소한 3,498만 톤을 기록하였다. 소비량은 3,468만 톤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수출량은 19.81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계란 가격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연간 계란 재래시장 가격은 1kg당 9.23위안으로 전년 대비 13.8% 하락했으며, 주산지 도매시장 가격은 1kg당 7.82위안으로 전년 대비 더 큰 하락 폭(17.9%)을 보였다.

〈표 4〉 가금알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	전망치	연평균 증감 (%)
생산	생산량	3,498	3,542	1.3	3,624	2.1	3,785	0.6
소비	총소비량	3,468	3,519	1.5	3,615	2.7	3,746	0.6
	- 직접소비	2,641	2,678	1.4	2,730	1.4	2,822	0.5

(계속)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	전망치	연평균 증감 (%)
	- 가공소비	561	572	2.0	610	9.8	647	1.5
	- 종란·손실	266	269	1.1	275	1.1	277	0.2
무역	수입	0.0011	0.0010	-9.1	0.0005	-50.0	0.0001	-20.6
	수출	20	20	0.0	21	15.2	24	2.8
재고량		10	3	-70.0	-12	-192.3	15	1.4

주 1) 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2023~2025년 평균치 대비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2) 연평균 증감은 기준연도와 2035년 수치를 비교하여 산출한 연도별 평균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5.1. 생산 전망

2026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먼저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소폭 감소한 후 다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계의 산란율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가금알 생산량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가금알 생산량은 3,542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란계 사육기업이 정밀화·스마트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관리와 위험 대응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발전의 질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30년 가금알 생산량은 3,624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2.1% 증가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0.6% 증가한 3,785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5.2. 소비 전망

가금알 소비량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가공용 소비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가금알 소비량은 3,519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고, 그중 가공용 소비량은 572만 톤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계란과 기능성 계란에 대한 시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새로운 소비 방식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또한, 판매 채널이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됨에 따라 가금알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구조는 빠르게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가금알 소비량은 3,615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2.7% 증가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0.6% 증가한 3,746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계란 가공기술의 발전으로 가공용 소비량도 안정적으로 증가함으로써, 2030년 가금알 가공용 소비량은 610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9.8% 증가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1.5% 증가한 64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5.3. 무역·가격 전망

2026년 가금알 수출량은 20만 톤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금알 수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계란 제품의 국제시장 경쟁력과 영향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가금알 수출량은 21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15.2% 증가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2.8% 증가한 24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금알 수입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이며, 2026년 가금알 수입량은 약 10톤, 2030년과 2035년에는 각각 약 5톤과 1톤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6년 계란 시장의 수급은 균형 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란 도매시장의 월평균 가격은 1kg당 8~11위안을 유지하고, 연평균 가격은 2025년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기간 동안 산란계 사육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계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가격 변동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5.4. 불확실성 요인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금알 국제 교역 및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가 빨라지고 포유류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국경 간 전파 위험이 더욱 커져 중국의 가금류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정보기술과 계란산업의 융합이 심화되면서 산업의 전환과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계란 가공기술의 발전은 계란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 생물분해, 막분리, 초임계 추출 등의 기술이 광

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계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비용이 높고, 개발주기가 길며, 고부가가치 계란 제품의 시장 육성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최근 산란계 사육 기업의 규모화·집약화가 추진되면서 비용 관리, 품질 관리, 위험 대응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편, 계란시장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따른 계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연중 계란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산란계 산업 전체가 적자 또는 수익성이 낮은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가금알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 유제품

2025년 중국 유제품 생산량은 4,168만 톤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고, 유제품 소비량(원유로 환산)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5,805만 톤을 기록했다. 유제품 수입량(원유로 환산)은 1,668만 톤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으며, 원유의 연평균 수매가격은 kg당 3.06위안으로 전년 대비 7.8% 하락했다. 전망 기간 내 국내 생산력은 계속 향상되고, 우유 단위 생산량은 완만하게 증가함으로써 유제품 공급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표 5〉 유제품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	전망치	연평균 증감 (%)
생산	생산량	4,168	4,220	1.2	4,507	7.3	5,117	2.0
소비	총소비량	5,805	5,840	0.6	6,213	7.5	6,764	1.6
	- 식용	5,151	5,180	0.6	5,542	7.9	6,056	1.7
	- 사료용	280	301	7.5	304	10.1	345	2.3
	- 기타	145	146	0.7	129	-25.4	116	-3.9
	- 손실	214	213	-0.5	238	23.3	248	2.5

(계속)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	전망치	연평균 증감 (%)
무역	수입	1,668	1,600	-4.1	1,722	3.8	1,937	1.6
	수출	75	100	33.3	102	126.7	108	9.1
재고량		-44	-120	172.7	-87	-363.6	183	18.7

주 1) 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2023~2025년 평균치 대비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2) 연평균 증감은 기준연도와 2035년 수치를 비교하여 산출한 연도별 평균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6.1. 생산 전망

2026년 사육단계에서 손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젖소 사육 두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유전자 개량, 정밀화 사양관리 등의 기술이 보급되면서 젖소 단위 생산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유제품 생산량은 여전히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6년 중국 유제품 생산량은 4,22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 젖소 품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규모화와 표준화 수준도 꾸준히 향상되고, 우유 단위 생산량 수준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낙농산업 지원정책 추진 및 시장시스템의 견인으로 공급단계의 생산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유제품 종합 공급능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2030년 유제품 생산량은 4,507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7.3% 증가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2.0% 증가한 5,11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6.2. 소비 전망

2026년 경제 회복, 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유아 양육수당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유제품 소비량이 5,840만 톤으로 0.6%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유제품 식용 소비량은 36.9kg으로 전년 대비 0.3kg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정책적 유인 및 시장 육성 등이 함께 작용하여 중국 유제품 소비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신선도와 활성 영양물질 면에서 우수한 저온 유제품에 대한 도시민과 중·고소득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여 액상 우유시장의 핵심 추

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액상 우유는 물론 치즈, 버터 등 건식 유제품의 수요가 유제품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선도 낙농업체의 심가공 부문에서 자국 내 고품질 신선우유로의 전환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2030년 유제품 소비량은 6,213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7.5% 증가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1.4% 증가한 6,764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각 연도의 1인당 평균 유제품 식용 소비량은 각각 39.7kg과 43.6kg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무역·가격 전망

2026년에는 국내 생산능력의 개선과 함께 국산 제품의 대체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조치가 시행된 후 일부 수입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수입 증가를 억제할 전망이다. 2026년 유제품 수입량은 1,6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비의 잠재력이 커지면서 고품질의 다양한 유제품의 수요와 국내 생산력 구조 간의 격차가 존재함으로써 수입산이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수입품목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액상 우유 수입은 점차 감소하면서 국내산 저온 우유, 상온 우유의 수입품에 대한 대체효과는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치즈, 유청과 버터 등의 심가공 건조 유제품은 차음료, 요리, 로스팅 등 산업의 발전과 함께 수입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30년 유제품 수입량은 1,722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3.8% 증가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1.6% 증가한 1,93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 국내 원유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유제품 수요는 구조적인 업그레이드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원유 수매가격은 안정세 속에서 완만한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예상 가격은 kg당 3.00~3.15위안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력 최적화, 수입 충격의 완화, 원유 수급 격차 해소, 유제품 소비의 경직성 증가세, 유제품 심가공 가속화, 유제품에 대한 큰 소비 수요 잠재력 등의 이유로 미래에 원유 수급시장이 균형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6.4. 불확실성 요인

현재 중국 낙농업의 핵심적인 불확실성은 외부 충격이 산업 내부로 점차 전환되면서 보다 심층적이고 복잡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젖소의 사육 규모가 지속적으로 조정·감소하고 있지만, 사육 효율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계속 향상되면서 생산능력 감축의 효과를 약화시켜 시장의 수급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영 압력 하에서 많은 중·소규모의 목장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고, 위험 대응능력이 강하고 생산능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규모 목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체 원유 공급의 탄력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치즈, 버터 등 가공품의 생산력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최종 소비시장 소비능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과잉 공급 혹은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시장의 연동성이 계속해서 강화됨으로써 국내 낙농업의 생산비와 유제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되었다. 한편으로, 뉴질랜드, EU 등 세계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변동 및 국제 유제품 가격의 변화는 분유, 유청, 버터 등의 대중상품 수입 경로를 통해 국내 수급과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환율 변동, 국제 해운 비용의 변화 및 반보조금, 관세 등의 무역정책의 조정도 국제시장의 충격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사료는 젖소 사육의 핵심 투입재로서 생산비용의 60~70%를 차지하며, 그 공급 안정성과 가격 변동은 낙농업의 수익성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중국의 대두박, 목초 등 주요 사료원료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사육단계의 생산비는 외부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규모화 사육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목장이 집중된 지역에서 충분한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료의 외부 구매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7. 유지작물과 식물성 식용유[1)]

2025년 중국의 유지작물 재배면적은 1,447만 ha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그중 유채와 땅콩 파종면적은 각각 807만 ha와 497만 ha를 기록했다. 유지작물 생산량은 4,096만 톤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그 가운데 유채와 땅콩 생산량은 각각 1,732만 톤과 1,987만 톤이었다.

2025년 식물성 식용유 생산량은 3,296만 톤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그중 착유용 국산 식용 유지작물은 4,086만 톤이며, 이를 가공해 생산한 식용유는 1,283만 톤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수입 식용 유지작물(대두, 유채, 해바라기, 아마 등)을 착유하여 생산한 식용유는 2,013만 톤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식물성 식용유의 생산구조를 살펴보면, 대두유 1,890만 톤, 유채유 718만 톤, 땅콩유 383만 톤, 기타 식물성 식용유 304만 톤으로 구성되며, 3대 주요 식용유(콩, 유채, 땅콩)가 식물성 식용유의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8%이다.

식물성 식용유 소비량은 3,806만 톤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그중 식용 소비량은 3,552만 톤으로 전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1인당 소비량은 25.28kg이다. 전체 식물성 식용유 소비량 중 대두유, 유채유, 땅콩유, 올리브유의 비중은 각각 47.6%, 24.5%, 11.1%, 6.7%이다.

2025년 식용 유지작물(대두 포함) 수입량은 1억 1,771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그중 대두가 1억 1,183만 톤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한 반면, 유채와 땅콩 수입량은 각각 250만 톤과 26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60.8%와 68.6% 감소했다. 특색 있는 유지작물 중심으로 수입 다변화 경향이 나타났으며, 참깨와 아마는 각각 146만 톤과 108만 톤이 수입되었고, 그 증가율은 각각 23.5%와 55.3%이다. 식물성 식용유 수입량은 694만 톤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이처럼 수입량이 감소한 이유는 국제 식물성 식용유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국내 식물성 식용유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 목본 유지작물과 목본 유지(油脂)는 포함하지 않음.

〈표 6〉 식물성 식용유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대비 증감 (%)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증감 (%)	전망치	연평균 증감 (%)
생산	생산량	3,296	3,223	-1.9	3,119	-0.3	3,190	0.2
소비	총소비량	3,806	3,796	-0.2	3,789	1.2	3,723	-0.3
	- 주민 직접 소비용	3,552	3,546	-0.2	3,514	0.6	3,423	-0.2
	- 사료용	254	250	-1.6	275	10.0	300	1.8
무역	수입	694	779	12.2	687	-13.8	572	-3.3
	수출	69	40	-42.0	40	11.1	40	1.1
재고량		116	175	50.9	-23	-115.8	-1	-39.3

주 1) 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2023~2025년 평균치 대비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2) 연평균 증감은 기준연도와 2035년 수치를 비교하여 산출한 연도별 평균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7.1. 생산 전망

유채, 땅콩 등 주요 유지작물의 재배면적 증가세가 유지되고, 유지작물 소비 다양화로 해바라기, 참깨 등의 재배면적도 확대되면서 전체 유지작물의 재배면적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유채와 땅콩 재배면적은 각각 813만 ha와 503만 ha로 전년 대비 각각 0.8%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재배면적이 기준연도 대비 각각 5.6%와 7.9% 증가한 840만 ha와 527만 ha이고, 2035년에는 각각 연평균 0.9%와 1.3% 증가한 873만 ha와 557만 ha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전면적 농촌 진흥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건을 갖춘 지역 및 신형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를 위한 우량한 농지, 종자, 농기계(농기구), 농법을 확대함으로써 유지작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유채와 땅콩의 ha당 생산량은 각각 2,190kg과 4,020kg이며, 2035년에는 각각 연평균 2.1%와 1.4% 증가한 2,610kg과 4,605kg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작물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 자연재해 등의 위험 대응능력 강화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6년 중국 전체 유지작물 생산량은 4,204만

톤에 달하고, 그중 유채와 땅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2.8%와 3.2% 증가한 1,780만 톤과 2,02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전체 유지작물 생산량은 4,647만 톤, 유채와 땅콩 생산량은 각각 1,991만 톤과 2,24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35년에 전체 유지작물 생산량은 5,286만 톤에 달할 것이고, 유채와 땅콩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 3.1%와 2.8% 증가한 2,285만 톤과 2,559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물성 식용유 생산량은 전반기에는 감소하다가 후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유지작물의 생산량 증가, 품질 제고, 품종 다양화 등으로 착유한 국산 식물성 식용유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입 유지작물을 착유한 식물성 식용유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식물성 식용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3,223만 톤이며, 그중 국산 식물성 식용유 생산량은 1,324만 톤으로 추정된다. 2030년 식물성 식용유 생산량은 기준연도 대비 0.3% 감소한 3,119만 톤이고, 그중 국산 식물성 식용유 생산량은 1,440만 톤이고, 후반기에는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2035년에는 각각 3,190만 톤과 1,635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7.2. 소비 전망

2026년 식용 유지작물 소비량은 특색 있는 유지작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식용 유지작물 소비량은 1.85억 톤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고, 그중 대두는 0.9% 감소하고, 유채와 땅콩은 각각 10.0%와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식용 유지작물 품종의 소비구조, 국산과 수입산의 소비구조가 모두 조정되는 추세를 나타내며, 그 총소비량이 변동하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식용 유지작물 소비량은 기준연도 대비 3.8% 감소한 1.79억 톤이고, 2035년에는 연평균 0.04% 감소한 1.85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유채, 땅콩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3%와 2.6%이며, 전체 식용 유지작물 소비량에서 국산의 비중은 51.3%로 추정된다.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물성 식용유 소비에 있어 양과 품질을 추구하는 소비 추세가 특색 있는 풍미, 기능성, 차별성에 대한 수요로 전환될 전망이다. 식물성 식용유 1인당 평균 소비량이 안정적인 추세에서 소폭 감소하고, 식물성 식용유 품종 구조도 소폭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총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의 요인이

더해지면서 식물성 식용유 소비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축산업의 사료 혼합유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식물성 식용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3,796만 톤이며, 그중 주민 직접 소비량과 사료 혼합유 수요량은 각각 3,546만 톤과 25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 식물성 식용유 소비량은 3,789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1.2% 증가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0.3% 감소한 3,723만 톤으로 주민 직접 소비량과 사료 혼합유 수요량은 각각 3,423만 톤과 3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근거하면 2035년 식물성 식용유 자급률이 43.9%일 것으로 예상된다.

7.3. 무역·가격 전망

향후 10년간 국제시장에 의존하여 국내 유지작물과 식물성 식용유 공급 부족분을 충족시키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물성 식용유 소비량 감소, 품종구조 조정, 수입선 다변화 등의 이유로 식용 유지작물과 식물성 식용유 수입량은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6년 식용 유지작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1.1억 톤이고, 그중 유채, 땅콩과 기타 특색 유지작물 수입량은 각각 400만 톤, 55만 톤과 28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물성 식용유 수입량은 올리브유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한 779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 식용 유지작물과 식물성 식용유의 수입량은 기준연도 대비 각각 14.3%와 13.8% 감소한 9,766만 톤과 687만 톤이고, 2035년에는 각각 연평균 2.3%와 3.3% 감소한 9,015만 톤과 57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중국 내 유지작물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식물성 식용유 가격은 세계 바이오연료 정책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품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대두유, 유채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유는 국내외 연동성이 강해 국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국산 유지작물과 식물성 식용유 자급율이 점차 상승하고, 현물시장기능이 점차 개선되고, 공급사슬이 강화되며, 생산효율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7.4. 불확실성 요인

유지작물 생산 및 수확시기에 악천후가 발생하면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국내산 공급뿐만 아니라 수입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채 개화기의 갑작스러운 냉해, 땅콩 수확기의 지속적인 장마 등은 당해 연도 작황을 크게 좌우한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 간의 지정학적 충돌이 주요 유지작물 및 유지 제품의 공급망과 수급 상황, 가격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무역 정책의 불안정, 주요 생산국과 무역국의 빈번한 관세 조정 등이 식용 유지작물 및 식물성 식용유의 수출입과 공급 예측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의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바이오 연료 정책 및 산업 발전이 식용 유지작물 및 식물성 식용유의 무역과 수급 등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석유 의존도가 낮아져 비료 등 농자재 가격이 낮아지고 유지작물 생산비도 절감된다. 다른 한편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이 증가하면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석유 가격의 하락은 바이오디젤 분야에서 식물성 식용유의 사용량을 줄여 그 수요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 당류[2)]

2025년 중국 당료(당 원료)작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49.53만 ha이며, 그중 사탕수수와 사탕무 재배면적은 각각 129.53만 ha와 20만 ha이다. 당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억 1,787만 톤이며, 그중 사탕수수와 사탕무 생산량은 각각 1억 449만 톤과 1,338만 톤이고, 전년 대비 각각 2.4%와 7.8% 증가했다. 중국 설탕업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설탕 생산량은 1,042만 톤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으며, 그중 사탕수수와 사탕무를 원료로 한 설탕의 생산량은 각각 883.7만 톤과 158.7만 톤을 기록했다.

2025년 국내 설탕 소비량은 1,5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연간 1인당 설탕 소비량은 11.2kg이다. 최근 5년간 설탕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 직접 소비량은

2) 사탕수수, 사탕무를 포함한 설탕의 생산 원료 작물을 나타냄.

소폭 감소하고 공업용 소비량은 소폭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5년 소비자 직접 소비량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699만 톤이고, 공업용 소비량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871만 톤을 기록했다.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크고, 관세할당량을 초과한 수입의 이윤이 커지면서 중국의 설탕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출량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2025년 설탕(시럽과 프리믹스 분말은 제외)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492만 톤이며, 수출량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14만 톤이다. 시럽과 프리믹스 분말 수입량은 118.4만 톤으로 전년 대비 50.2% 감소했다.

국제 설탕 수급에 여유가 생기고, 국제 설탕 가격 하락과 국내 설탕 생산량 회복으로 중국 설탕 가격이 하락하였다. 2025년 설탕 연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7.1% 하락한 1톤당 5,855.2위안을 기록했다.

〈표 7〉 설탕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	전망치	연평균 증감 (%)
생산량	1,042	1,170	12.3	1,250	22.7	1,300	2.5
소비량	1,570	1,560	-0.6	1,600	3.1	1,620	0.4
수입량	492	500	1.6	450	2.7	400	-0.9
수출량	14	16	14.3	15	0.0	15	0.0
재고량	-50	94	-288.0	85	-177.3	65	67.7

주 1) 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2023~2025년 평균치 대비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2) 연평균 증감은 기준연도와 2035년 수치를 비교하여 산출한 연도별 평균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8.1. 생산 전망

2025년 국내외 설탕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고, 토지 임차료, 비료 등의 투입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민의 당료작물 재배 의향이 낮아짐에 따라, 2026년 당료작물 재배면적은 소폭

감소하고, 전망 기간에는 사탕수수 주산지의 기계화 수준 향상 및 주요 생산지 보호정책에 힘입어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당료작물 재배면적은 148.9만 ha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0.7% 증가한 151만 ha, 2035년에는 연평균 1.0% 증가한 160.7만 ha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기간에 우량품종 육종 및 보급, 기계화 작업 수준 제고, 표준화 재배기술 보급 등으로 당료작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당료작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78.915톤/ha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1.3% 증가한 80.160톤/ha, 2035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4.0% 증가한 82.245톤/ha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간 사탕수수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 사탕무 생산력 확대, 사탕수수 기계화 수확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사탕수수 생산 효율이 대폭 향상될 것이고, 사탕무 설탕 의존 정책 지원, 산지 규모화 발전과 기술 업그레이드, 용두기업의 가공기술 향상에 따른 사탕무 가공 효율과 상품 품질 제고로 사탕무 설탕 생산력이 점차 강화됨으로써 설탕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년 설탕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170만 톤이고, 2030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22.7% 증가한 1,250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2.5% 증가한 1,3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8.2. 소비 전망

전망 기간 내에 중국 거시경제가 계속 회복되어 식용 설탕 소비량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직접 소비는 소폭 줄고, 공업용 소비는 소폭 증가하며, 소비 품질은 전면적으로 제고될 전망이다. 기능성 설탕, 정제 설탕 등 고품질 공업용 설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식품기업은 풍미와 맛이 보장된 정제 식용 설탕을 더 선호함으로써 공업용 설탕 총소비량의 안정적 증가 및 구조 업그레이드가 한층 더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전국 식용 설탕 소비량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1,560만 톤이며, 2030년 식용 설탕 소비량은 1,600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3.1% 증가할 전망이다. 2035년 식용 설탕 소비량은 1,620만 톤으로 연평균 0.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8.3. 무역·가격 전망

전망 기간에 국내 식용 설탕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거기에 국가의 수입 조절정책이 개선되면서 식용 설탕 수입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식용 설탕 수입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500만 톤이고, 2030년 수입량은 기준연도 대비 2.7% 증가한 450만 톤이며, 2035년에는 연평균 0.9% 감소한 4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 측면에서는 국내 설탕 수급 구조 및 산업 입지의 영향으로 수출량이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여 15만~16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기간 내에 국내 설탕 가격은 제당 비용 상승 및 국제가격의 저점 형성에 따른 저가의 수입량 유입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6년 국내 설탕 가격은 톤당 5,500~6,000위안 구간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8.4. 불확실성 요인

국내 주요 산지의 사탕수수의 주요 성장기에 봄 가뭄, 여름·가을 홍수, 태풍으로 인한 도복(작물 쓰러짐), 가을·겨울 서리 피해를 입거나, 글로벌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인도, 태국이 동시에 기후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설탕 원료 감산과 설탕 공급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시장 가격 변동을 유발하고 재고 조절 압력을 가중시켜 국내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전망 기간 동안 건강 소비 정책이 강화되고, 대체당 생산 기술이 더 발전하며, 소비 습관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공업용 설탕 수요 감소와 총소비량 성장세 둔화 또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설탕 전방 산업 수요의 예상치 미달, 재고 소진 둔화, 생산-소비 연계 불균형으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 계획, 설탕 가격 지지력 및 산업 수익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라질, 인도 태국의 설탕 수출량은 세계 전체 수출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수출 정책, 바이오 연료 정책 방향, 관세 조정 및 물류 비용은 전 세계 설탕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전망 기간 내에 원유 가격 변동으로 인해 사탕수수가

에탄올 원료로 전환되거나, 수출국의 국내 수급 경색으로 수출 쿼터가 축소되거나, 지역 무역 마찰로 수입 비용이 상승하거나, 국제 해운 및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내외 설탕 가격이 급변할 수 있다.

9. 사료

2025년 중국 공업사료[3] 생산은 잠시 조정을 거친 후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가축 및 가금류 사육의 규모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업사료 보급률이 더욱 높아져 약 60%에 달한다. 사료 제품 공급 방식이 더욱 유연해지고, 제품 맞춤 제작 및 위탁 가공(OEM) 등의 방식이 사육기업의 개별화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공업사료 생산량 증가를 견인하였다.

2025년 공업사료 생산량은 3억 4,225.3만 톤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 이중 배합사료 생산량은 3억 1,94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 농축사료 생산량은 1,338.1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 첨가제 프리믹스 사료 생산량은 752.7만 톤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2025년 중국 전체 공업사료 소비량은 3억 3,933만 톤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 돼지, 육용 가금, 산란 가금, 반추동물, 수산물, 반려동물과 기타 동물 사육을 위한 공업사료 소비량은 각각 1.64억 톤, 1.02억 톤, 3,197만 톤, 1,445만 톤, 2,341만 톤, 407만 톤이었다.

2025년 사료 원료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서 사료용 곡물 수입이 감소했다. 사료용 곡물 원료 누적 수입량은 1,761만 톤으로 전년 대비 52.0% 감소했으며, 사료용 단백질 원료 누적 수입량은 876만 톤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주요 사료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의 국내 연평균 가격은 3년 연속 하락했다. 2025년 사료용 옥수수의 공판장 연평균 가격은 kg당 2.36위안으로 전년 대비 6.5% 하락했으며, 대두박 가격은 kg당 3.64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하락했다.

3) 공업사료는 배합사료, 농축사료, 첨가제혼합사료를 포함한 공업화된 생산 및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각종 사료 제품을 의미하며, 가축, 가금류, 수산 동물 및 기타 사육 동물의 사육에 사용됨.

〈표 8〉 사료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	전망치	연평균 증감 (%)
생산량	34,225	34,382	0.5	36,992	14.1	41,026	2.4
– 배합사료	31,946	32,138	0.5	35,213	15.7	39,746	2.7
– 농축사료	1,338	1,310	−2.1	938	−30.5	619	−7.5
– 첨가제혼합사료	753	745	−1.0	652	−9.3	472	−4.1
총소비량	33,933	34,131	0.1	36,719	13.3	40,723	2.4
– 양돈 사료	16,389	16,342	−0.1	17,710	17.4	19,727	2.7
– 육용가금 사료	10,154	10,401	1.8	10,949	13.1	11,571	1.8
– 산란용가금 사료	3,197	3,210	0.1	3,802	18.4	4,750	4.2
– 수산양식 사료	2,341	2,361	0.9	2,461	8.0	2,489	0.9
– 반추동물 사료	1,445	1,408	−0.9	1,380	−8.8	1,763	1.5
– 반려동물·기타 사료	407	409	0.5	417	4.0	428	0.7
손실	280	239	−14.6	261	7.9	290	1.8
순 수출량	12	12	0.0	13	62.5	13	5.0

주 1) 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2023~2025년 평균치 대비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2) 연평균 증감은 기준연도와 2035년 수치를 비교하여 산출한 연도별 평균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나타냄.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9.1. 생산 전망

단기적으로 사료 제품의 공급모델과 제품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어 개별 사육주체의 개별화된 수요를 충족시킴에 따라 공업사료 사용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공업사료 생산량은 3억 4,382만 톤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망 전반기에 저단백 배합사료 기술 보급이 확대되고 새로운 바이오사료와 기능성 첨가제 연구·개발 및 적용 속도가 빨라지고, 특색 있는 사료 자원이 충분히 발굴·활용되고, 사료 원료 공급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되면서 사료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 공업사료 생산량은 3억 6,992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1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후반기에는 사료 생산이 정보화·지능화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정밀 영양 체계와 영양 기준을 확립·완비하며, 스마트 공장이 보급되어 사료산업의 원가 절감 및

효율 증대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35년에는 공업사료 생산량이 4억 1,026만 톤으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료 제품의 구성에서 배합사료의 생산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농축사료와 첨가제혼합사료의 점유율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사료 생산량 중 배합사료의 비중은 2026년 93.5%에 2035년 96.9%로 상승하고, 동 기간 농축사료와 첨가제혼합사료의 비중은 각각 2.3%p와 1.0%p 하락할 전망이다.

9.2. 소비 전망

향후 10년간 중국 축산업은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 제고에 집중하여 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새로운 발전단계로 도약할 것이고, 이에 공업사료 수요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6년 공업사료 소비량은 3억 4,131만 톤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13.3% 증가한 3억 6,719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망 하반기에는 원료 곡물 절감형 사료 제품이 확대 보급됨으로써 원료 곡물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사료 수요 증가세도 완만해질 전망이다. 2035년 공업사료 소비량은 연평균 2.4% 증가한 4억 723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돼지사료 수요 증가가 전체 공업사료 소비 증가를 견인할 것이며, 육용 가금, 산란 가금, 반추동물과 수산물 사료 소비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9.3. 가격 전망

단기적으로 사료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예측에 따르면 2026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풍작 추세를 이어가 전년 대비 4.4% 증가한 12.86억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대두 분야에서는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이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세계 대두 생산량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4.21억 톤으로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2026년도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산 사료용 곡물 공급 능력이 강화되고, 사료 원료 공급에서의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사료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사료용 곡물 시장은 매우 긴장된 수급 균

형에서 여유 있는 수급 구조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료 원료 원가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며, 사료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4. 불확실성 요인

기상 재해는 사료 원료 공급에 다중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한편으로, 극심한 기상 재해는 농작물 감산 및 품질 저하를 유발한다.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번갈아 발생하면서 주요 곡물 수출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생산량의 극심한 변동성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국내적으로 보면, 동북(東北), 화북(華北)과 황화해(黃淮海) 주산지에서 옥수수·밀 수확기에 장마, 태풍 등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작물 감산, 이삭 발아 및 곰팡이 독소 수치 상승 등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내 사료 원료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상 리스크는 농산물 해운 물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파나마 운하, 미국 미시시피강이 모두 가뭄으로 인한 수위 하강으로 통항이 제한되고, 화물선 적재량을 줄이거나 항로를 변경하여 운송 원가를 상승시키고 입항을 지연시켜 시장 수급의 불안정과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 동물 전염병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계속 확산되어 가축·가금 생산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생산 능력 감소는 사료 수요를 더욱 억제하여 시장의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가격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사료 운송이 전염병 전파의 주요 경로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는 오염된 원료, 차량 또는 포장을 통해 지역을 넘어 확산될 수 있어 사료 생산, 물류, 판매 등 단계의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며, 이는 사료 산업 구조와 운영 체계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사료용 곡물 수요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지정학적 충돌이 빈번해짐에 따라, 전 세계 식량 공급원은 소수 주요 생산국에 고도로 집중되어 공급망이 정책 조정, 항운 중단, 지역 안보 등 다중적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 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 사료 원료 공급 제약과 가격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정박·깻묵 등 비곡물 원료, 목본, 초본 및 곤충 단백질 자원, 미생물 단백질, 세포 배양 단백질로 대표되는 신형 단백질 등을 포함한 비전통 단백질 원료 자원 개발과 신형 사료 첨가제의 산업화는 여전히 다중적인 병목현상에 직면해 있다. 실험실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실현까지의 주기가 길고 기술 전환 난이도가 높다. 이 외에도 상업적 응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안전성 평가와 규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장 진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10. 결론

향후 10년간 중국 농업·농촌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농촌의 전면적 진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민간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주요 농산물의 종합 생산력이 현저히 강화되고, 다변화된 식품 공급 체계가 더욱 완비되며, 농업의 종합 효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능형 농기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선진 기술이 적용되어 중국 농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농산물 생산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돼지고기를 포함한 일부 품목의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최근 빈번해지는 기상 재해 및 동물 전염병 발생에 따른 생산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농산물 소비는 점차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친환경·고품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건강, 다변화, 개성화 소비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육류 소비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이중 돼지고기 소비는 감소하고, 가금육, 소고기, 양고기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소비구조 변화는 유제품, 식물성 식용유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농산물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주요 농산물의 수입 의존도는 현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중국의 대외 개방도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수입선도 더욱 다변화되고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유지작물 중

대두 수입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식물성 식용유, 설탕 수입량도 식생활 다변화와 건강 소비 대중화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산물 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고, 품질 고급화에 따른 가격 상승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향후 10년간 생산비 상승, 신기술 도입, 정부의 비축·조절 기능 강화, 소비패턴 변화, 기후 리스크, 무역 갈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개별 품목에 따라 가격 변화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육류, 계란, 유제품 가격은 사육 비용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 변동성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식용유, 축산물 등에서는 고품질 제품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 中國農業展望報告(2026-2035), 北京: 中國農業科學技術出版社.